

페럼공포에 팬미팅·콘서트 줄줄이 취소

방송사 공개방송 마스크 입장 필수
극장에선 손 소독제 등 방역 총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연예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2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 대중문화 무대의 특성상 전염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각 분야마다 방역에 힘쓰며 행사 연기 및 취소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난방송 체제에 비공개 녹화까지

KBS와 MBC, SBS는 각각 29일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각 부서별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일부터 재난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8일 KBS 1TV ‘역사저널 그날’ 대신 ‘긴급대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역 대비상’을 방송하는 등 편성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며 관련 임시 프로그램도 방송하고 있다. 관객이 모이는 공개 방송프로그램 제

작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KBS 2TV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엠넷 ‘엠카운트다운’ 등 제작진은 열화상 카메라와 손 소독제를 스튜디오 입구에 비치하고, 방청객과 스태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프로그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청객 없이 녹화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드라마 관계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촬영 현장 이동이 잦고, 출연진이나 일부 스태프는 일의 특성상 마스크를 제대로 낄 수 없어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팬미팅·콘서트 취소도

국내는 물론 해외 팬덤까지 아우르는 케이팝 스타들은 대규모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을 잇따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슈퍼주니어는 28일 새 앨범을 발표하며 경기도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컴백쇼 ‘슈퍼주니어 더 스테이지’를 열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긴박하게 이어지면서

행사를 비공개 녹화로 바꿨다. 400명씩 총 2회에 걸쳐 진행할 컴백쇼에 팬들을 초대하지 않고, 멤버들과 최소 인원의 스태프만 참여해 행사를 마무리했다.

가수 강성훈도 다음달 14일과 15일 진행할 계획이었던 팬미팅을 잠정 연기했다. 상황을 예의주시한 후 일정을 다시 조율해 공지할 예정이다.

28일부터 3월20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글로벌 전시회 ‘커넥트, BTS’는 5개 나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관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못해 현장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전시장 입구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

●극장, 긴급 방역에 행사 자제

대규모 관객이 모이는 각 극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밀폐된 공간에서 수백명이 2~3시간 동안 머물러야 하는 환경에서 바이러스 확산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상황을 몰고 있기 때문이다.

CGV와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극

장 체인들은 각 영화관마다 눈에 띄는 공간을 활용해 감염 예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손 세정제도 다수 배치하고 있다. 개인위생이 중요한 만큼 이를 적극 알리려는 취지다. 29일 현재 국내에서는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확대되는 상황이 아닌 만큼 각 극장들은 아직까지 관객 변동이나 관람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CGV 관계자는 29일 “향후 추이를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방역을 진행하고 외부 행사도 협력업체와 협의해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화계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억이 있다. 그해 6월10일 개봉하려던 영화 ‘연평해전’은 관객 사이의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봉 일을 2주 뒤로 미루기도 했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예정된 시사회나 제작보고회 같은 행사를 조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메르스 사태를 겪은 입장에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



흑조로 변신한 BTS. 그룹 방탄소년단은 29일(한국시간) 미국 CBS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에서 신곡 ‘블랙 스완’ 무대를 처음 공개했다. 검은색 의상을 맞춰 입은 멤버들은 맨발로 무대에 올라 현대무용을 응용한 군무를 선보였다. ‘블랙 스완’은 이들이 2월21일 선보일 정규 4집 ‘맵 오브 더 스킨: 7’의 수록곡이다.

아이돌 팀 재편 중…4인조 젝스키스·6인조 모모랜드 재탄생

AOA 최근 3명 탈퇴로 5인조로 활동
미나·다원 등 불안증세로 활동중단

요즘 아이돌 그룹의 최대 이슈는 ‘팀 재편’이다. 복수의 멤버를 내세우는 아이돌 그룹이 각기 다른 이유로 일부 멤버들의 활동 중단 또는 팀 탈퇴 등으로 재정비에 나선 탓이다. 현재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룹 대부분이 팀 체제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1세대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부터 데뷔하기도 전에 각종 이슈를 몰고 다닌 트레저까지 출발 당시의 원년 멤버 구성에서 변화한 새로운 팀 체제로 팬들 앞에 서고 있다. 젝스키스의 강성훈이나 빅뱅의 승리, 아이콘의 비아이처럼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팀을 탈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 문제 등 개인 신상의 변화에 따라 활동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심심찮다.

2012년 8인조로 데뷔한 AOA는 세 명의



모모랜드

멤버가 잇따라 탈퇴하면서 최근 5인조로 재편했고, 모모랜드 역시 9인조에서 6인조가 됐다. 지난해 데뷔한 신인 걸그룹 체리블랫도 세 명이 탈퇴하면서 7인조로 축소해 활동 중이다. 12인조로 데뷔한 더보이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멤버 활이 건강상 이유로 팀을 떠난 뒤 다음달 6일 11인 체제로 컴백한다.

멤버들의 건강 문제는 활동 중단으로 이어진다. 트와이스의 멤버 미나를 비롯해 우

주소녀의 다원, 세븐틴의 에스쿱스, 오마이걸의 지호, 몬스타엑스의 주현, 위키미키의 최유정 등이 불안 증세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다. 이달의소녀 멤버 하슬 역시 컴백을 한 달여 앞두고 반복적 불안 증상에 시달리며 이번 활동에서 빠지기로 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노출돼 불안 증세, 공황장애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악의적인 비방과 악플도 이들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무리하게 활동을 강행하기보다는 멤버들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팀 재정비가 팬들의 기대감을 낮추고, 그룹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29일 “활동 중단 등은 오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당사자의 선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면서 “결과적으로는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도 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김사부2’ 설렘주의보 인기 날개 단 안효섭

187cm 신장·반듯한 외모 ‘블루칩’



안효섭

연기자 안효섭이 완벽하게 ‘날았다’. SBS ‘낭만닥터 김사부2’의 폭발적 인기가 발판이다.

안효섭은 현재 방송 중인 ‘낭만닥터 김사부2’에서 외과 의사 서우진 역을 연기하고 있다. 지방의 한 외상전문병원인 돌담병원에 근무하면서 ‘진짜 의사’로 성장해가는 인물이다. 동기생인 차은재 역 이성경과는 동료애와 로맨스 사이를 묘하게 오간다.

드라마는 28일 방송분이 시청률 20.7%(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는 가운데 안효섭이 그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에 그는 시청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187cm에 달하는 큰 키와 반듯한 외모는 인기몰이에 불을 지핀 요인이다. 덕분에 일찌감치 탄탄한 팬덤도 갖췄다.

안효섭은 2015년 MBC 단막극 ‘풍당풍당 러브’를 통해 연기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그려왔다. 2017년 KBS 2TV ‘아버지가 이상해’와 2018년 SBS ‘서른이 지만 열일곱입니다’를 거쳐 작년 tvN ‘어비스’에서 주연급 캐릭터를 소화했다. 기세를 몰아 작년 상반기부터 기획된 ‘낭만닥터 김사부2’에도 빠르게 캐스팅됐다. 시즌1 등장인물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출연을 결정했다.

안효섭은 극중 ‘수술 천재’라는 설정을 위해 틈 날 때마다 생고기를 꺾매는 연습에 매진했다. 심폐소생술처럼 힘 있게 표현해야 하는 동작도 많아 몸무게도 8kg가량 늘렸다.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의 김민지 실장은 29일 “데뷔 이후 첫 의학드라마라 의학 용어 공부는 물론 수술 장갑을 끼는 사소한 행동까지 오랫동안 연습했다”고 밝혔다.

드라마 초반에는 시즌1의 주인공 유연석과 비교하는 시선도 받았지만,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그만의 매력”이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덕분에 방송가에서도 ‘주연 블루칩’으로 꼽히고 있다. 여러 제작사가 이미 안효섭을 섭외 목록에 올려두고 캐스팅 기회를 엿보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4

멜론, 13개 음원유통사들에게 소송 당해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이 음원 유통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워너뮤직코리아, 유니버설뮤직 등 13개 업체는 최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 등을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49억여 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29일 “잘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작년 9월 SK텔레콤 자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 모 씨 등을 저작(인접)권료 18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여자)아이들, 4월 데뷔 첫 월드투어



(여자)아이들

그들 (여자)아이들이 데뷔 후 첫 월드투어에 나선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SNS를 통해 ‘2020 (여자)아이들 월드 투어 아이-랜드 : 후 엠 아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4일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미국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 세계 31개 도시를 돈 후 서울에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울 공연 날짜는 추후 공개한다. (여자)아이들은 2018년 5월 ‘아이 엠’으로 데뷔한 직후 신인상 6관왕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펑수, 유튜브 200만 구독자 달성



펑수

EBS ‘자이언트 팽TV’의 주인공 펑수가 동명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20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 펑수는 29일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하다”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출자 이슬예나 PD도 “진심 어린 콘텐츠로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자이언트 팽TV’는 작년 4월 시작해 11월27일 100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10살 남짓의 팽권인 펑수는 “팽하!(펑수하이)” 등의 유행어를 낳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최근에는 뜨거운 인기로 힘입어 각종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이다.

백지영, 데뷔 20주년 맞아 기부행사



백지영

데뷔 20주년 기념 전국 투어를 진행 중인 가수 백지영이 기부 행사를 진행한다. 소속사 트라이아스는 “2월1일 대전에서 열리는 백지영의 ‘백스테이지’ 공연에서 기부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지영은 공연 당일 대전 유성구 컨벤션센터에서 관객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세내 같고 코र्ट디부아르의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